



월드컵과 불교

'산문 안에서 숙박' 한국 불교 체험

템플스테이, 10개도시 30여사찰서

월드컵 10개 경기장 주변 불교문화제

●서울: 정치,경제,문화의 중심도시인 서울. '우리민족의 문화와 역사, 희망'을 담아낸 서울경기장만큼이나 서울의 불교문화 역사, 그 깨를 같이 하고 있다. 조계종 총본사인 조계사, 봉선사의 불교의식 영산제, 북한산 도선사의 마애석불, 승과를 실시했던 봉은사 선불당, 화계사 동종 등이 있다.

●대구: 해발 1,192m의 팔공산. 수많은 문화재가 있는 불교문화의 성지인 이곳에는 동화사,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국보 14호) 등이 자리잡고 있다. 그밖에 주변에는 기도영험도량 깃배위, 대구 동쪽 72km 떨어진 경주시 토함산에는 세계문화유산인 석굴암과 불국사 다보탑(국보 21호)과 석가탑(국보 23호) 등이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은 팔만대장경이 모셔진 법보사찰 해인사가 합천에 있다.

●울산: '낙동강맥'에서 세 번째로 높다는 해발 1,240m의 가지산에서 신라 현덕왕 16년(824년) 도의국사가 창건한 석남사가 있다. 국내에서 가장 큰 비구니 종립 특별 선원으로 널리 알려진 이 절에는 석남사 부도(보물 369호), 석수고 등이 있다.

●부산: 범어사에는 삼층석탑(보물 250호), 대웅전(보물 434호)가 있고, 근처 양산 통도사에는 대웅전(보물 144호)을 비롯해 총 65동 580여 칸 구성돼 귀중한 불교 문화재가 많다. 또한 신라 진흥왕21년(560년)에 신승이 창건했다는 운주사는 비구니 전문강원으로 금당 앞 석등(보물 193호), 원흥국사비(보물 316호) 등이 있다.

●광주: 중심사에는 철조비로자나불좌상(보물 131호), 삼층석탑이 있고, 도선국사가 하룻밤 사이에 천불천탑을 조성했다는 화순 운주사에는 와불과 석실에 두 개의 부처가 등지고 앉아 있는 운주사석조불감(보물 797호)과 구층석탑(보물 796호)이 자리 잡고 있다. 또한 통일신라 때 창건된 구례 화엄사에는 각형전(국보 67호), 영산회괘불탱(국보 301호) 등이 있다.

●서귀포: 1700년대 승유역불 정적으로 모든 사람이 폐쇄되었던 제주도는 1900년대 비구니 안봉려관 스님이 관음사를 중창하며 부흥했다. 서귀포 중문단지에는 약천사는 10만여 신도의 도움으로 8년 6개월 만에 완성한 대적광전이 단일 법당 건물로는 동양 최대이다.

●전주: 목탑에서 석탑양식으로 옮겨가는 구조를 보여주는 전주 인근의 미륵사지 구층 석탑. 그밖에 백제 법왕 원년(599년)에 창건된 김제 금산사는 미륵신앙의 근본도량으로 미륵전(국보 62호), 노주, 석련대, 해덕왕사 진응탑비, 오층석탑, 석종, 당간지주 등이 있다.

●대전: 남매탑 전설이 전해오는 공주 풍악사. 근처 갑사에는 칠당간 및 지주(보물 256호), 삼신대불탱(국보 298호), 동종(보물 478호) 등이 있고, 효종 원년(1950년)에 제작된 갑사패불은 물품의 시주자를 적어놓아 17세기 중반의 생활상과 사찰의 재정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또 보은 법주사의 팔상전(국보 제55호)은 오층 목탑이다.

●수원: 조선조 정조가 '부모은중경'을 들고 창건했다는 효사찰 용주사. 용주사에는 고려시대 청동종인 용주사범종(국보 120호), 천연기념물 264호 용주사 회양나무, 당시 최고의 화가 김홍도가 그렸다는 부처상 등의 귀중한 불교문화재가 있다. 또한 비구니 수행도량인 수원 봉녕사가 수원불교를 말하고 있다.

●인천: 강화 전등사는 석가삼존을 봉안한 대웅보전(보물 178호)과 조선 중기 다포계 건물인 약사전(보물 179호) 등이 유명하다. 인근에는 관음도량으로 유명한 낙간사 보문사에는 석굴사원인 보문사석실, 낙간산 중턱에 일명 눈썹바위 암벽에 조각된 마애석불좌상이 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a.com

왜 하나? 2002년 한일월드컵 기간 중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관광객은 연인원 80여만 명으로 월드컵조직위는 추산하고 있다. 이 중 6만여명의 외국인들이 템플스테이에 참가할 전망이다. 템플스테이는 우리민족의 고유 문화가 숨쉬고 있는 전통사찰에서 불교문화를 체험하는 문화행사로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40일간 시행된다. 템플스테이는 전통사찰을 매개체로 새로운 관광문화의 인프라개발 및 문화민족의 이미지 선양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족한 외국인관광객 숙박 시설문제도 해결 할 수 있어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에도 한몫 할 것으로 보인다.

수료증(법명)과 한국불교 기념품을 제공받는다. 30여 사찰에 외국인 50명씩 총 1500명을 40일간 목재 되면 연인원 6만명이 수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준비사항은? 템플스테이 사업을 주관하는 조계종은 1월 초부터 전통사찰의 신청서를 받는다(문의 02-720-7060). 선정위원회는 신청사찰 심사를 거쳐 결과를 통보하고, 사찰 보수비를 지급한다. 지정사찰 선정기준은 거리상 개최장소와 가깝고, 수련법회 경험이 있으며, 가람과 주변환경이 어우러진 사찰이어야 한다.

인터넷 사이트 구축 및 콘텐츠 개발도 1월 초

조계종 외국인대상 자원봉사聯 발족

홍보 사이트·안내 리플릿 등 준비

편의시설·다양한 프로그램 '성공 관건'

불교계의 템플스테이 시행은 대사회적 기여와 함께 월드컵과 사찰문화체험을 접목해 문화월드컵으로 승화시키고 한국불교를 세계화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어떻게 하나? 10개 월드컵 축구장 주변 30여 전통사찰에서 템플스테이가 시행된다. 이들 사찰은 사찰 보수를 거친 뒤 월드컵 기간 중 1박2일이나 2박3일 기간의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템플스테이에 참가하는 외국인들은 한국불교의 사찰 안내 교육과 숙소를 배정받으며, 수련복, 자료집, 사찰안내지도, 청규집을 제공받는다. 템플스테이 주요프로그램은 전통예불, 참선, 발우공양, 다도, 문화재 관람 등이며, 회향식 때는

업체공고 및 선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작업이 이뤄진다. 언어별 검색, 텍스트지원, 디자인 등을 고려한 예약시스템과 한국불교 사찰에 대한 내용, 템플스테이 홍보자료가 구축된다.

또한 구랍 12월 8일 조계종 포교원은 월드컵과 부산 아시안게임 등 각종 국내외 행사에서 외국인들에게 한국불교를 안내하게 될 외국인대상 자원봉사자연연합회를 발족했다. 월드컵 기간중 템플스테이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될 외국인 대상 자원봉사자연연합회는 조계사, 봉은사, 송광사, 통도사, 불국사, 통도사 부산 포교당, 연등국제불교회관, 신홍사 신도 5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또 포교원은 국제포교사회와 영어 중국어 일어 3개 국어로 제

가상체험: 미국인 클라라씨 수원 봉녕사에 가다



수원 봉녕사에서는 석조삼존불(도유형문화재 151호·사진) 등 불교문화재와 비구니스님들의 수행생활을 볼 수 있다.

미국 LA에 살고 있는 직장인 클라라는 현지 여행사를 통해 6월 5일 수원에서 열리는 미국-포르투갈 경기 입장권을 구입했다. 한국을 처음으로 방문하는 클라라는 관광보다는 동양문화를 체험하고 싶었던 차라 템플스테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수원경기장 주변 봉녕사의 2박3일 일정 프로그램을 보고, 참가신청비를 은행에 입금했다.

드디어 6월 3일 인천공항에 도착한 클라라는 곧바로 794년의 역사가 깃든 비구니스님들의 수행도량인 봉녕사로 향한다. 중무소에서 간단한 입방절차를 마치고, 공양간으로 가서 발우공양 체험이 기다린다. 공양 후 목탁소리가 고즈넉한



템플스테이는 월드컵기간중 외국인들이 사찰에서 생활하며 한국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되고 있다. 외국인들이 새벽예불을 마치고 스님들과 정소하고 있다.

작하는 안내 리플릿을 제작할 방침이다. 각 단체들의 움직임: 한국불교 종단협의회는 월드컵 개최시기에 맞춰 10대 도시 축구장에서 각 종단 주관으로 축하법회, 기념전 시회, 문화공연, 체육행사 등을 다채롭게 펼칠 예정이다. 종단협의회와 함께 월드컵 문화시민운동도 전개, 명랑만화 제작 및 배포, 계도캠페인 전개, 지하철 역사 광고, 경기장 주변 청결운동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다.

대전불교사찰연합회도 월드컵 기간 중 대전시의 지원을 받아 불화 및 서예전시회, 사찰음식전, 다도시연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명원문화재단도 템플스테이 진행사찰에 별도의 부스를 마련, 한국의 차문화와 외국인들에게 열리는 다도시연회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과제는? 템플스테이 사업의 성공적인 회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찰 내 편의시설 확보이다. 봉은사 외국인안내 자원봉사자 모임 이태길 회장은 '템플스테이를 준비하고

있지만, 사찰 내 시설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어려움이 크다'고 밝혔다.

또 지속적인 템플스테이 사업기반 마련이 중요하다. 템플스테이 사업이 1회성 행사에 그칠 경우, 외국인 포교를 위해 축적한 역량을 일거에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가장 큰 관건이 템플스테이사업에 의해 구축한 인터넷 사이트의 가동 및 유지이다.

월드컵이후 템플스테이 사업을 일본처럼 국내 일반인 포교에도 활용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국내에서도 주 5일근무제가 실시되는 만큼 사찰관광객들을 포교하는 새로운 관광문화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프랑스 자크 도골피안 교수는 최근 <한겨레 21> 기고를 통해 "월드컵기간중 한국문화를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의 실시여부가 월드컵 성공개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것이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kim@buddhapa.com

축구도 보고 불교도 배우고

산사에 올려져지고, 비구니스님들이 줄지어 법당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잠시 후 범종각에서 웅장한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운반과 범고소리도 연이어 들린다. 법당에 들어와 스님들과 저녁예불을 함께하니 마음속에 감동이 물밀 듯하다. 다음날 아침공양 후 안내스님, 자원봉사자들을 따라 경내를 둘러본다. 대적광전, 약사보전, 용화각 등 각 전각의 설명을 듣고 열심히 메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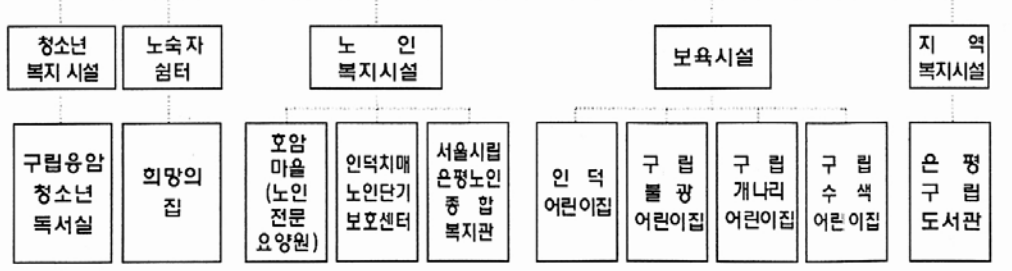
세계최초의 비구니 올원 금강올원으로 향한다. 그 옆의 비구니 강원 육화당에는 해맑은 학인 스님들이 탁자에 여념 없다. 흐트러짐 없이 공부하는 스님들의 모습을 보니 절로 감탄이 이어진다.

오후에는 향하당의 다각실에서 사중스님들과 차를 마시며, 다담을 나누는 뒤 한국의 전통선인 화두 선을 체험한다. 오후 6시부터 미국과 포르투갈의 월드컵 경기를 보기 위해 클라라는 서둘러 수원경기장으로 향한다. 클라라는 다음날 인근의 용주사와 미륵당, 세계문화유산인 수원성 등을 둘러보고 한국불교문화의 진수를 마음속에 담아미국으로 돌아갔다.

근하신년

理事長 坪山 徐聖雲 三千寺·社會福祉法人 仁德園

인덕원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488번지 ○ 전화 : 02-385-8205-6 ○ 팩스 : 02-385-8207 ○ E-mail : indukwon@netsgo.com

會長 三千寺 住지 徐聖雲 서울 恩平區佛敎寺岩 聯合會

- 회 장 삼천사 주지 서성운
- 부회장 수곡사 주지 한자용, 시연사 주지 김혜진, 관음사 주지 이법성, 송천사 주지 김혜장
- 총 무 보문사 주지 덕호, 경선, 불광학원원 원장 도광
- 은평경찰서 경승실장 서성운, 서부경찰서 경승실장 이법성
- 서울구치소 교정교화 불교분과위원회 회장 서성운, 부회장 노병섭
-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산 127-1번지 ○ 전화 02-359-7766 ○ 팩스 02-358-2286 ○ E-mail : seobj21@netsgo.com

임오년 새해를 맞아 불교도 여러분에게 무치님의 자비광명이 두루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회 장	이 사	법회총 총무원장	김 해 료
조계종 총무원장	이 사	조동종 총무원장	박 심 율
서 정 대	이 사	영불종 총무원장	이 청 봉
부 회 장	이 사	법상종 총무원장	정 법 료
태고종 총무원장	이 사	진인종 총무원장	이 유 삼
이 운 산	이 사	용화종 총무원장	이 덕 신
부 회 장	이 사	법륜종 총무원장	이 대 화
전태종 총무원장	이 사	분원종 총무원장	이 대 화
전 운 덕	이 사	영랑종 총무원장	정 동 봉
부 회 장	이 사	대승종 총무원장	윤 일 오
전태종 총무원장	이 사	삼륜종 총무원장	김 혜 승
전 운 덕	이 사	월반종 총무원장	김 해 곡
부 회 장	이 사	미타종 총무원장	이 필 정
진각종 총무원장	이 사	여래종 총무원장	신 명 안
최 호 양	이 사	대각종 총무원장	이 민 청
부회장 겸 사무총장	이 사	조계종 총무부장	이 연 택
관음종 총무원장	이 사	조계종 사회부장	정 영 산
이 흥 파	이 사	태고종 총무부장	우 혜 공
상임이사	이 사	전태종 총무부장	박 덕 수
총회총 총무원장	이 사	진각종 총무부장	손 혜 인
전 남 정	이 사	법화종 총무부장	이 법 찬
상임이사	이 사	영불종 사회부장	양 범 료
일승종 총무원장	이 사	조동종 감찰위원장	송 행 성
김 혜 정	이 사	민법현	민 법 현
상임이사	이 사	보문종 총무원장	정 혜 일
김 사	이 사	대승종 총무원장	김 혜 승
상임이사	이 사	월반종 총무원장	김 해 곡
김 사	이 사	미타종 총무원장	이 필 정
상임이사	이 사	여래종 총무원장	신 명 안
김 사	이 사	대각종 총무원장	이 민 청
상임이사	이 사	조계종 총무부장	이 연 택
김 사	이 사	조계종 사회부장	정 영 산
상임이사	이 사	태고종 총무부장	우 혜 공
김 사	이 사	전태종 총무부장	박 덕 수
상임이사	이 사	진각종 총무부장	손 혜 인
김 사	이 사	법화종 총무부장	이 법 찬
상임이사	이 사	영불종 사회부장	양 범 료
김 사	이 사	조동종 감찰위원장	송 행 성
상임이사	이 사	민법현	민 법 현

사단법인 한국 불교 종단협의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18 수성빌딩 2층 (홈페이지 www.mahayana.or.kr) 대표전화 : (02)732-4885 / FAX : 737-7872